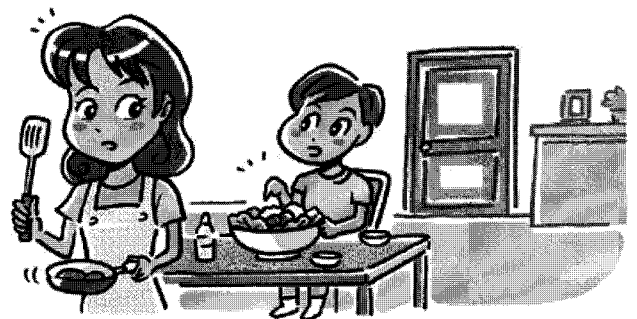


식량 생산력향상 · 안정공급 ‘농약 역할’ 매우 커

농업기술 중심에 농약 이용한 병해충 및 잡초 방제대책 있어
‘과학의 진보’ 새로운 문제 제기, 환경 영향 고려 농약 변화

- 홍보부 -

우리 한국인은 지금 예전에 느껴 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풍부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쌀 등의 농작물이 다양한 농업기술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중심에는 농약을 이용한 병과 해충, 잡초 방제대책이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의 점심.
이영희씨는 철수군이 아주 좋아하는 토마토와 상추를 이용하여 채소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철수군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입

먹은 뒤, 샐러드를 앞에 두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야? 맛이 없어?」
「맛있어요. 하지만 이 채소들 모두 농약을 사용한 것들이겠지요」
「아마, 그럴거야. 하지만 어떨라고?」

「많이 들어왔는데. 농약이라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영희씨도 잠시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기었습니다. 나도 샐러드를 아주 좋아해. 그러나 매일 먹는 맛있는 샐러드인데 위험하다니 그런 일이 있을라고... 샐러드와 농약의 관계 따위를 생각한 적은 없는데.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다 먹은 후에 조사해 봐요」

오늘 오후는 농약에 대한 공부입니다.

32년전에 자취를 감춘 DDT...

농약이라고 말하면, 여하튼 불신의 눈으로 보기 쉽습니다. DDT, BHC 등이 사용 후에도 좀처럼 분해되지 않고 작물이나 토양중에 잔류하며 생선이나 조류 등의 체내에 축적한다는 것이 판명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농약에 대한 사용이 1971년에 중지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과거 농약에 대한 선입견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쓰라린 경험이 농약의 세대교체를 재촉했습니다. 효과 뿐만 아니라 잔류성 즉,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중요시한 새로운 세대의 농약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DDT나 BHC 등 초기의 약제는 전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고, 보다 안전성이 높은 농약이 사용되고 있습니

다. 독성이 낮고 분해되기 쉬우며 축적되지 않고 병이나 해충, 잡초에만 효과를 발휘하며 투하량이 적은 것 등이 특징입니다. 또한 곤충 페로몬도 활용되고 천적 등의 생물농약도 실용화 되었습니다.

생태계와의 조화

환경에 대한 영향도 배려하여 지금의 농업 그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에 대하여는, 병이나 해충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수준이하로만 방제하면 된다는 방제방식에 따라 효과가 확실하고 천적에 해를 입히지 않는 농약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는 항상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농약의 개발에 있어서도 최신의 연구 성과를 도입하고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농약의 중요한 역할

급격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경지의 감소에 의하여 한국의 식량 생산 기반은 약화되고 있으며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변동이나 인구의 급증에 의하여 세계적인 식량부족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대로 수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식량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농업 기술의 중요한 중심인 농약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정보**